



10·3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후보들이 10일 오후 민주당영에 참배하기 위해 국립5·18묘지에 들어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정세균, 손학규, 조배숙 후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수권능력 검증무대” 전국시선 광주로

민주 전대 주자들 오늘 합동유세 등 당권레이스 출발

10·3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에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광주에서 첫 방송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통해 정권 탈환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 민심의 향배는 민주당의 당권 구도는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당권주자 합동연설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당대회라는 점에서 합동연설회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정권탈환 비전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여론은 민주당이 그동안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계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오후에는 방송토론회에 참석,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치열한 노선 경쟁을 벌였다.

또한,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11일 광주시장 개관대회에 참석, 합동연설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당권주자 합동연설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당대회라는 점에서 합동연설회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정권탈환 비전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여론은 민주당이 그동안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제시하는 정권 창출의 비전과 리더십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 민심의 향배가 전반적인 당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당권 주자들은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며 차기 대선에서 야권 대연합을 통해, 정권 창출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거대 여권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수권 야당으로의 도약을 이끌겠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후보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외면하면서 정권 창출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합동연설회에서 ‘제2의 창당’ 정신으로 정권 창출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광주에서부터 민주당 바람이 불어야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동연설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경남(12일), 대전·충남(13일), 제주·울산(14일), 대구·경북(15일), 서울·인천(26일), 경기(27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시도당 개관대회에 맞춰 전국투어를 벌이며 세월이 지나 나설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육아 직장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제2차 저출산 대책...예산 계획 없어 실효성 논란

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이 주어지고, 공무원이 세차량 이상을 들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을 마련해 당정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안은 소요될 예산조치 밝히지 않고 있어 벌써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계획안은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졌던 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예컨대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50만원 정액제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휴직 전 실수령 임금의 40%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액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자녀 2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퇴자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이 개발된다.

정부는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줄기로 했다. 둘째 이상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현재 소득하위 50%까지 지급되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오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70%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도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日 또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발표

외교부·시민단체 즉각 철회 촉구

일본 정부가 10일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규정했던 이 기술을 해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는 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

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킨 것은 한·일 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서울홍사단 회원 등 20여명도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분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 다케시마’라고 포함한 것은 한일 양국 지식인들의 성명서나 간나오토 총리의 답화 내용 취지를 일거에 뒤집는 것”이라며 해당 표기의 삭제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1800 돌파

2년3개월만에

코스피지수가 2년 3개월여만에 마침내 1,800 고지에 다시 올라섰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8.22포인트(1.02%) 오른 1,802.58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증가 기조로 1,800선을 넘은 것은 2008년 6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도 996조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전날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덕에 투자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개장했고, 유가증권시장은 물론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강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지수는 2.62포인트(0.54%) 오른 484.48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추석대목 고객 잡아라 ▶4면 전략적 책 읽기 ▶5면 애니메이션 물러온다 ▶10면 3G 데이터 무한경쟁 ▶13면 광주일고 야구 오늘 결승전 ▶14면

### “ENJOY THE FOOD LIFE”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스테이크의 환상 짝꿍! 와인

저희 베네치아 월드컵점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향 좋고, 맛좋은 고급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으며 각종샐러드와 다양한 스테이크, 해산물요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베큐 폭립    바닷가재 안심스테이크    메로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 월드컵점 OPEN

패밀리레스토랑 (since 1988)

## 베네치아

www.venezia.co.kr

대소모임을 위한 단체(40~70석가능)

베네치아 20%할인 및 포인트·적립·결제카드

SK멤버십카드 / OK Cash Bag신세계포인트카드 / 광주은행비자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롯데마트    베네치아 월드컵점    승마장    중앙생협 체육공원

월드컵점 062) 675-6636    ※모아골프연습장 1층※

• 본점 062) 227-9363  
• 롯데점 062) 232-7370    • 신세계점 062) 360-1981  
• 목포점 061) 283-2720    • 첩 단 점 062) 971-7654